

시효 겨우 5개월 남았는데... 전두환 추징금 손놓은 국회

징수특별법 1년제 낮잠...정부는 매년 수익 들어 경호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追徵金) 공소 시효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5월 학살 책임자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경호·경비를 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별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여대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배기운·장병완·박영선·최재성·강기정·이석현·조정식·임내현 의원 등이 참여한 법안은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법 적용 대상인 특정고위공직자를 '대통령 및 국무위원'으로 한정하면

서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이라는 약칭까지 붙으며 발의 당시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1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지난 1997년 반탄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여태껏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추징금에 대한 공소 시효가 오는 10월 11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자칫 추징금을 받아낼 길이 영영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장 잔고가 29만원 뿐"이라고 해놓고 1000만원 이상의 유사발견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를 즐겨 비난을 받은바 있다. 자녀들도 호화 건물에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생활하면서 숨겨둔 재산에 따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는 법안도 상정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로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소위원회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애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솔직하게 말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5·18 광주항쟁의 학살 책임자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경호·경비를 해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전두환 경호에 사용한 예산(연간 6억원 이상)만 30억원에 달한다.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책임자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경호·경비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광주 남구 애벌B유치원(대표 최봉훈) 원생 40여 명이 광주 동구 용산동 노인요양시설인 용연실버빌을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한 뒤 어르신들 앞에서 양중맞은 표정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 온 中관광객 100명중 단 3명만 전남 찾아

1~2월 방한 대부분 타지역 공항 이용
무안공항 통한 직접입국 60%도 안돼

지난 1~2월 국내에 입국한 중국 관광객 100명 중 단 3명만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중국통(中國通) 제2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방한 중국인은 44만6069명이고, 이중 순수 관광객은 31만7513여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순수 관광객 중 전남을 찾은 중국인은 전체의 3.2% 수준인 고작 1만259명이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지에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09년 134만명, 2010년 187만명, 2011년 222만명, 2012년 283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남은 2009년 3만873명, 2010년 5만2505명, 2011년 6만6606명에 그쳤다. 그나마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4만2456명의 중국 관광객을 전남에 유치했지

만 이마저도 전국 5% 수준이다.

전남의 중국 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중국인이 다른 지역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의 입국 경로는 인천공항이 27만4127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5만2209명·11.7%), 인천항(4만5276명·10.2%), 김포공항(2만382명·4.6%), 김해공항(1만8312명·4.1%) 순이었다.

반면, 1~2월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6470명뿐이었다. 전남의 중국 관광객 중 40%가량은 다른 지역의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해 입국한 뒤 전남을 제2, 제3의 관광지로 찾아오고 있는 셈이다. 전남이 중국인들의 첫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은 숙박 등 관광 수입이 도착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 중국 관광객 유치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하다. 지난 2011년 무안공항을 이용한 외국 관광객 7만4291명 중 77%는 중국인이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무안~탄진, 무안~선양 등 2개 전세계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이 노선을 통해 57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기념식 식순은 1급 비밀?

姜시장 "보훈처 전달까지도 안 알려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약속도 안 지켜"

강운태 광주시장이 5·18 민중항쟁 기념식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간막이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6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보훈처의 과거(행정)를 보면 5월 17일까지도 5·18 기념식 공식식순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며 "광주에서 공식으로 요청을 해도 안 가르쳐 준다. 이번에도 또 그렇지 모르니 지켜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기념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포함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기념식에 참석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은 연주만 하고, 한번은 합창으로 끝내더라. 결국, 제창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에서 광주 등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청에도 생색내기식으로 지난 2009~2010년에는 식전 연주만 하고,

2011~2012년에는 합창만 했다.

강 시장은 또 "보훈처가 올해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식순에 넣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않고, 소극적·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해 5·18 33주년을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5·18 기념식 2~3일 전에 식순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했으며,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문 등에도 빠르면 오는 15일에는 식순 등 일정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 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2회 아줌마 축제

2013 06.07-06.09 3일간 | 순천 팔마경기장

행사안내

첫째날 6월 7일(금요일) 축하공연 19:00~21:00
시군예술단공연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예선) | 시낭송대회 | 농산물개장식 | 식전공연(난타) | 개막식 |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둘째날 6월 8일(토요일)
시군예술단공연 | 나도스타다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본선) | 아줌마가요제(예선) | 추억의7080콘서트

셋째날 6월 9일(일요일)
시군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 완상의 매직쇼 | 아줌마댄스 경연대회 | 아줌마가요제결선 |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주최 순천시 | 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아리오커뮤니케이션
후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농림축산식품부 | NH농협 | 수협 | KB국민은행 | NH농협 광주지역본부 | NH농협 전남지역본부

공연장어신청 http://cafe.daum.net/azim2 문의사항 062-220-0555